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인간론

-한국종교와 요한복음을 중심 하여-

김 춘 기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신약학)

1992년 2월 17일 타임(Time)지는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의 파괴를 표지기사로 다루고있다. 그 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환경파괴 현상은 지구 도처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 공기, 식물, 동물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지구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중 하나가 오존층 파괴이다. 얼마 전까 지도 남극지방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것이 최근 인공위성 사진에 잡힌 것은 북위50도까지 광범위하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만 간에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독일, 영국, 캐나다, 뉴잉글랜드 북부 지방에 심각한 자외선 노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은 냉장고의 냉매 역할을 하거나 분무기의 분무 역할을 하고 있는 프레온 가스(CFC)이며 이 가스를 과다 사용하는 선진국의 대기권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인간의 편익을 위한 문명의 발달이 인간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외선이 그대로 쏘이면 인간에게는 실명, 피부암, 면역기능 감퇴 등이 나타나며 식물에게는

광합성작용 저하, 바다 속의 플랑크톤 감소로 어패류의 죽음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결국 지구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동반자로 보지 않고 인간의 편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보다 편하게 되었지만 자연은 붕괴되었으며 마침내 그 속에 사는 인간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종교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간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한 극복을 위하여 하나의 제안을 해보려 한다.

1. 파멸시키는 세계를 만드는 인간론

오늘날 지구 전반에 나타난 파멸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서구를 중심 하여 발달된 이원론적 사상이며 또 하나는 그릇된 기독교의 인간관이다.¹⁾

1) 서구사상에 나타난 이원론의 문제

희랍시대에서 자연(nature)은 physis로 움직이는 모든 것, 운동하는 것을 통칭하는 의미였다. 이 점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자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동양의 인간관과 일치한다.

동양에서는 언제나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였기에 참된 인간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하나됨(oneness)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데카르트와 함께 서구 근대철학이 시작하면서였다. 서구 근대의 사상은 그 동안 증세를 거쳐왔던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체계에

1)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정배 편저 『생태학과 신학』 (종로서적, 1989), 김규진 저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1), 「기독교사상」 1991, 9월호 참조.

서 벗어나 이성이 중심인 인간세계로 바꾸었다. 이때 데카르트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인간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는 명제로 근본적인 인간관의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예속물이 아닌 인간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에서 존재하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 땅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 결과 인간 이외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후 서구는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부여했으며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게되었다. 인간과 인간이 외의 것으로 분리하였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의 분리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분리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데카르트 이후 서구 사상은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간만을 위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자연과 분리되었으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서구과학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켰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였기에 자연을 철저하게 착취하였다. 자연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용되면서 서서히 그 뿌리마저 뽑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분리와 인간 중심적 사고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아는 것이 힘이다” 고 말한 베이컨(F. Bacon)도 인간의 힘과 권력에 대한 추구를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권력의 추구의 최고단계는 “전체 자연에 대한 인류의 권력과 지배행사”로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권력 장악은 학문과 과학을 통하여 성취되어 갔다.²⁾

그 결과 산업 혁명이래 지난 몇 세기 동안 자연파괴, 생태계 파괴, 지구 대기층 변화 등 인류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지구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기독교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 신앙관의 문제

자연파괴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서구 기독교가 지닌 신앙관의 문제이다. 교회는 창 1:28에 나타나는 “땅을 정복하라”(Dominium Terrae)는 말씀을 근거하여 서구 근대 과학적 세계관-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을 좀 더 확고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초기 교부들 시대에 나타나는 Dominium Terrae에 대한 해석은 인간 존재의 순수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즉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이다.³⁾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로서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이 점에서 화이트(L. White Jr.)는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라는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착취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⁴⁾

이 말을 좀 더 분석하면 오랫동안 기독교는 “정복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자연을 정복하여 인간의 편리함에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의 특권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득이 된다면 자연이 파괴되고 멸절된다 하여도 어떤 죄의식 없이 진을 뽑았다. 북해도의

2) U. 두호로, G. 리드게, 『살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pp. 64-65.

3) 이정배,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1987,6), pp.14-27.

4)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March, 10. 1967).

청어가 사라진 것도 사하라 사막이 좀 더 커 가는 것도 열대 우림이 해마다 줄어가는 것도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나는 것도 다 이런 결과에서이다.

더 나아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을 인간으로 국한시키는데 많은 신학적 노력을 가하였다. 폰 라드(G. von Rad)를 중심 한 구속사 학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 중심적인 역사로 국한시키면서 자연을 소외시키게 하였다.

1989년 유럽 교회일치 대회에서 나온 선언문은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윤리관을 재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로 하여금 창조계를 그들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지배하라고 명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과 배치됩니다. 반대로 인류는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청지기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미래에 태어날 세대의 공동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피조물 전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를 지닙니다.⁵⁾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83년에 밴쿠버에서 열렸던 6차 세계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0년 3월 5일에서 13일까지 서울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세계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의미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기독교가 지니고 있었던 편협적인 신앙관을 반성하고 성서가 말하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5) 한국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1990), p.16.

2. 회복하는 세계를 만드는 인간론

1) 창조 신앙의 회복

그 동안 기독교 전통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구속신학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 구속신학의 중심은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나 폰 라드(G. von Rad)의 제자 베스터만(C. Westermann)은 1972년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인간과 민족을 중심 한 구속 신학적 관점에서 더 넓은 창조신학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⁶⁾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한 개인이나 민족의 문제보다 더 원초적인 근본문제 즉 삶, 죽음, 생성, 소멸, 타락, 구원을 취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건 이전에 창조 사건이 있었으며, 인간 이전에 자연과 세계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창조사건을 보면 에덴이란 동산에는 인간 이외에 하나님, 자연 그리고 또 다른 인간들이 서로 상관성 속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창 1-11장에 나타나는 원 역사는 보다 더 포괄적이며 우주론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창1:1-2:4a에 나타나는 p기자의 창조 사건은 인간이 최후에 창조되지만 창조의 중심이 인간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뜻은 분명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복하라”는 말 자체는 국가들이 전쟁으로 정복되고(민 32:22, 29, 수 18:1), 백성들이 예속 당하고(삼하 8:11), 인간들이 노예가 되고(느헤미야 5:5, 대하 28:10, 렘24:11, 19), 아녀자가 압제 당한다(에스더 7:8)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이 말은 문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6) C. Westermann, *Genesis 1-11*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Press, 1984).

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에게 이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는 전체 문맥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말을 인간에게 줄 때 하나님처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이 인간도 땅을 통치하라는 의미다. 참된 군주는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른 통치이다. 이와 같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땅의 모습대로 잘 지켜 나가도록 보살피라는 말이다. 28절 말씀에서도 “땅을 정복하라”는 말 이후에 동의어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이 나온다. ‘정복한다’는 말과 ‘다스린다’는 말은 동의어이다. 참된 다스림은 그들 자체를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28절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축복-땅을 정복, 생육, 번성, 충만함-이 22절에서는 모든 생물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결국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이 땅위에서 번성, 충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만 번성하고 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도 번성하고 충만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자연을 도맡 시키면서 인간 편리함에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 질서로 유지시킬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상기시킨 말씀이다.

창 2:4b-3:24에 나오는 J기자의 창조사건의 중심도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창 2:20).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의 짝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J기자가 말하는 인간은 흙에서 나온 자연의 신물이다. 인간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임으로 이들에게 책임적 존재이며 또한 다른 인간 없이 홀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P기자의 창조 사건과 J기자의 창조사건은 그 표현상의 차이 점은 있으나 근본 시각은 동일하다.

(1) 인간은 함께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인간-자연은 함께 있을 때만이 참으로 존재할 수 있다.

(2) 특히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있으면서 자연에 대한 책임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인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연은 그 본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파멸되거나 한다. 자연의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2) 한국종교 사상에 나타난 상생(相生)의 인간론

여기서 한국종교라고 할 때는 한국인에 의하여 생성된 종교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는 제외된다. 무교(Shamanism)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한국종교라 하면 개화기, 일제 침략기인 1860년(철종11년)에서 민족해방인 1945년까지 85년 간 한국역사에 유일한 단절기간에 나타난 종교를 말하는 것이다.⁷⁾ 이 기간은 민족의 역사가 단절되면서 그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제를 찾기 시작하던 때이다. 이 때 서학이라는 기독교가 유입되어 민족에 큰 영향을 미쳤지

7) 유병덕 편,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p.10.

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민족종교를 만들게 된다. 이 기간에 나타난 한국종교로 동학, 증산교 그리고 원불교가 있다.

(1) 김항(金恒)의 정역사상(正易思想)

역사의 단절과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였다. 기존적인 유교의 성리학은 이미 현실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성리학은 모든 것의 근거인 이(理)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원리상으로 볼 때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理)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각자가 내재하는 기(氣)에 의하여 달라지는 차별상의 형태로 나타났다.⁸⁾ 이것이 바로 오류이며 사회적인 현상은 계급사회(양반, 중인, 평민, 천민)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이런 사회의 원리는 평등주의지만 현실은 극복할 수 없는 계급사회를 들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다운 대접은 양반에 국한된다. 이러한 이조세계가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면서 그 동안 밑에서 억눌림을 당한 민중 속에서는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주인인 새 세계를 꿈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다. 이 새 세계의 꿈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김항(金恒)이다.

그는 중국의 주역(周易)을 비판하면서 새 세계에 필요한 역(易)이 정역(正易)임을 강조한 사람이다. 주역은 일종의 운명주의의 결과이다. 인간은 자연세계의 일부분으로 자연의 움직임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가 태어나는 년, 월, 일, 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정을 알기 위하여 우주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 주역이다. 이 점에서 역은 인간에 의한 역사변혁이나 자연변혁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천리를 깨달아 그것에 순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8)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7), pp.39-40.

것이 흔히 정치철학에 이용되어 백성들에게 운명론을 강조하여 제국주의를 장기화, 합리화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항은 역의 순환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시대를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가치체제와 제도를 선천으로 국한시키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제도를 후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논리, 가치는 선천에 국한되며 후천이 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후천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정역이다. 그리고 이런 새 세계의 후천이 선천 후에 오는 것을 개벽(開闢)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역의 요지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새 세계이며 유토피아이다. 이러한 후천개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일월개벽(日月開闢) 즉 천지개벽이다. 후천개벽이 되면 천지가 개벽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선천시대에는 지구가 23.5도 기울 상태이기에 일년이 365일이며, 사계절이 생긴다. 이런 자연현상의 불균형은 곧 인간 세상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세계에 평화, 평등, 조화가 있기 위하여는 먼저 천지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후천개벽에 나타날 천지개벽이다. 이 때에는 지구의 기울음이 없어지며 일년이 360일, 모든 것이 바르게 섬으로 사계의 구별이 없어지고 인간이 평등조화, 장수하게 된다. 이 때 현재(先天)의 윤력(閏曆)이 정력(正曆)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또 하나는 신명개벽(神明開闢)이다. 신명은 인간의 내적 정신력을 의미하는데 후천개벽이 되면 천지만물만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인간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의 세계가 상생(相生)의 세계로 변하게 된다. 선천은 신 중심 세계이며, 인간의 이상형이 영웅으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하나 그 결과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상극(相克)의 세계이다.

그러나 후천이 되면 세계는 달라진다. 이제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성인이 인간의 모델로 나타난다. 그리고 발전보다는 결실을 우선하는 서로 같이 사는 상생이 지배하는 조화의 세계가 된다. 이 점에서 김항의 정역사상은 민족 정신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고 해매는 민중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그것은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약자도 함께 사는, 상극을 넘어 상생하는 후천개벽을 이루는 세계이다. 이러한 김항의 사상을 중심 하여 동학, 증산교, 원불교가 태동된다.

(2) 한국종교에 나타난 인간론

① 동학의 인간론 - 시존(侍存)으로서의 인간

동학에서 후천개벽을 말할 때는 천지개벽 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중심은 신명개벽이며 더 나아가 역사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의 주체가 인간이다. 동학에 나타나는 인간관은 천주(天主, 하늘님)의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천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는 논리적인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천주는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하는 인격신이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섭리하는 내재적인 신이며 동시에 전지 전능하면서도 아직 인간 역사에 뜻을 다 펴지 않는 생성(生成)의 신인 것이다.⁹⁾ 여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인격적이며 내재적이며 동시에 생성의 신관-은 다음과 같은 말로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는 시천주(侍天主, 하늘님을 모신다) 사상으로 하늘님이 인격적이며 내재적인 존재로 인간과 함께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교주인 최시형은 시천주 사상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시천주는 곧 양천주(養天主, 하늘님을 키운다)

9) 김경재, “최수운의 신관”, 『최수운 연구』 (서울: 보성사, 1978), pp.46-47.

임을 강조하면서 하늘님을 모신다는 것은 고정되거나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라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듯이 천주가 인간 속에서 자라며 변화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늘님이 생성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아래의 말이 타당해 진다.

시(侍)란 곧 양(養)인 것이다. 모심은 단순한 소유, 보관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것을 섬김이다. 살아 계시는 것을 섬기는 것은 고정적 보존이나 현상유지가 아니라 키움(養)이다.¹¹⁾

이러한 양천주 사상은 손병희에 와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이 되도록 하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발전된다. 인내천 사상은 시천주를 거쳐 양천주가 되어 결과적으로 체천주(體天主)로 나타나는 것이다. 체천이란 “하늘님을 모시며 하늘님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하늘님을 체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늘님을 믿어 그에게 굴종하는 복종적인 인간도 아니며 하늘님이 되어버리는 교만한 인간도 아니다. 동학이 말하는 인간은 시존(侍存) 곧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다. 모심은 산모가 태아를 지닌 것과 같이 섬기는 것이며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님의 행위를 함으로 인간을 통하여 하늘님이 보이는 세계로 체현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직위나 소유나 나이에 따라 존귀와 비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며 그를 통하여 하늘님이 체현됨으로 하늘님 같이 모든 인간을 대접해야 한다.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후천개벽의 진정한 의미이다.

10) 윤노빈, “동학의 세계 사상적 의미”, 『최수운 연구』 p. 307.

11) *Ibid.*, p.307.

② 증산교의 인간론-상생(相生)하는 인간

증산교의 후천개벽은 동학보다 우주론적이다. 증산은 개벽을 여는 모든 일을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하였다. 이 천지공사는 크게 신정정리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로 나누는데 이 모든 공사의 중심사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원사상(解冤思想)이고 다른 하나는 상생사상(相生思想)이다. 증산은 인간의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선천에는 상극지리(相克之理)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에 어긋나 그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지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천지운도를 뜯어고치며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선경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여 세상을 고치라¹²⁾

증산이 보는 인간의 역사는 곧 선천의 상극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원한의 역사이다. 결국 이런 원한은 인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 신의 세계의 혼란을 오게 하며 그것이 다시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적게는 개인적인 불행, 싸움, 죽음으로 나타나고 크게는 민족적 분쟁, 전쟁으로 나타나 또 다른 원한을 만들게 된다. 이런 반복이 곧 인간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런 선천의 원의 역사를 풀려면 원을 만들지 말고 원을 만드는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증산은 극단적으로 “파리 죽은 귀신이라도 원한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¹³⁾ 고

12) 『대순전경』 5장 4절.

말한다. 이런 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천적 삶의 유형을 후천적 삶의 유형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증산교의 인간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은 신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일은 곧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신의 세계의 일은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이 땅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신의 세계와 인간의 미래를 좌우한다. 또 하나는 이 모든 세계의 조화는 지금 여기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사회적이며 더 나아가 우주론적인 인간관이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간 관계성을 지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극하면 모두가 죽고 상생하면 모두가 산다.

③ 원불교의 인간론-은적(恩的)인 인간

원불교는 종교적인 특징보다 사회사업이라는 실천적 측면이 강조된다. 초대교주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였다. 그가 깨달은 중심은 “한 뚜렷한(一圓) 기틀(相)”인데 그것이 바로 은(恩)이다.¹⁴⁾ 없어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뚜렷한 기틀이 바로 은인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은(恩)은 네 가지이다. 천지는(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이 그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네 가지 관계이다. 이 사은(四恩)은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혈통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 점에서 원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지은보은자(知恩報恩

13) *Ibid.*, 6장 44절.

14) 『원불교전서』 p. 1197.

者)이다. 즉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어느 종교보다 관계성이 강조된다. 자연-인간-구조와의 관계에서 참된 세계는 다른 것들의 은엿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한국종교가 지니고 있는 후천개벽은 허망한 환상주의나 황홀경에 빠진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어느 종교보다 현실과 인간이 처한 상황을 중심 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세계'로 변혁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다. 그 때에 인간은 신의 하나의 도구가 아닌 변혁의 주체이며, 그렇다는 신과 같아지려는 인간이 아닌 신의 역사를 담당하는 동역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인간은 인간 중심적 사상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과 상생하며, 모든 것들을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과의 필연적 관계성(天主, 侍存, 恩), 인간과의 필연적 관계성(解冤, 相生, 恩) 그리고 역사와의 필연적 관계성(동학혁명, 천지공사, 사회개혁)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앞에서 지적한 서구의 문화와 사상, 종교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 삶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되는 인간론

요한복음의 주제는 기독교론(christology)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기독교론은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곧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카이저(R. Kysar)가 "기독교인의 존재는 기독교론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¹⁵⁾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독교론은 결국 참된 인간이 무엇

15) R. Kysar, *John, Augusburg Commentary on The New Testa-*

이냐는 구원론(soteriology)으로 끝을 맺고 있다.¹⁶⁾

(1) 생명의 일반적 의미

요한복음은 기독교론을 중심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당신들로 믿게 하고 또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20:31, 새 번역)

이 생명은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형식이 포함되고 있다.

구약성서에는 죽음 이 후에 있는 영생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거기에는 죽은 후 부활한다는 사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영생의 개념도 없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장수와 자녀와 재물의 많아짐이다. 이때 생명에 대한 구약성서의 개념은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생명(God-given-life)으로 이해하였다.¹⁷⁾ 후기 유대교에서 비로소 부활 사상이 나타난다. 이 부활사상은 조로아스터교나 타종교의 영향에서 태동되었다기보다는 구약성서와 유대교로 발전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현실의 상황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중심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다고 믿어왔다. 악을 도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ment (Minneapolis:Augustburg Publishing House, 1986), p. 265.

16) R. T. Fortna, "From Christology to Soteriology", *Interpretation*, 27 (1973), pp. 31-47.

17) Jacob Jervell, *Jesus in the Gospel of John*, (Minneapolis: Augustburg Publishing House, 1987), pp. 44-53.

이 그 중심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공의를 세상 안에서 수립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서 구약성서는 의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는 신앙을 고수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고난, 죽음이 계속되었다. 특히 주전 2세기의 안티오커스(Antiochus) 3세, 4세 통치 때에 이러한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게 된다.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던 자들의 죽음에서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왜 이 역사 속에서 불의한 자들과 세력들이 흥하고 의로운 자들이 죽어 가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활신앙이 태동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 그때 비로소 의와 불의가 판가름나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활신앙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생명개념이 신약성서에서는 두 가지 특징으로 규정된다. 하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유대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케리그마의 핵심이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영원하며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또 하나는 이런 생명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부활이 미래에 있기에 부활 이후 얻을 새로운 생명도 미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생명은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기에 영생을 미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²¹⁾ 미래에 있기에 영생을 ‘받는다’(막 10:30, 눅 18:30),

18) G.W.E. Nickelsburg & M.E. Stone, *Faith and Piety in Early Judaism*(Philadelphia: Fortress, 1983), pp. 117-119.

19) 롬 6:10, 14:9, 고후 13:4, 행 25:19, 계 1:18, 2:8, 고전 15:3ff.

20) 계 1:18, 31, 7:16, 롬 6:10.

21) 막 10:17, 마 19:16, 25:46, 롬 2:7, 5:21, 6:22, 딤후 1:16, 6:12 디도 1:2, 3:7, 행 13:46, 48, 요 3:15f, 4:14, 6:27.

‘소유한다’, ‘들어간다’(막 9:43ft, 마 18:8f, 19:17) 등으로 표현하였다.

(2) 요한복음이 이해한 생명

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것 중 하나이다.²²⁾ 이 점에서 필슨(F. V. Filson)은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명명하였다.²³⁾ 특히 요한복음은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다른 생명과 구분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함을 강조하지만 그가 말하는 영생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미 서문에서 로고스(Logos)로 오신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요 1:4) 그것이 곧 사람들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빛은 생명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주제는 계속된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며(요 3:16)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자신인데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강조한다(요 3:36).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예수 자신을 생명의 물로(요 4장),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생명의 떡으로(요 6장)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다(요 9장). 이러한 주제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극치에 이른다. 예수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선언한다(11:25, cf. 14:6).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라는 것이다.²⁴⁾

22) 공관 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16번 나온다. 요한복음에는 36번, 요한서신에서 13번, 계시록에서 17번 나온다. 신약전체에는 135번 나오는데 요한문서에서 66번 나타난다.

23) F.V. Filson, "The Gospel of Life", *INT*, pp. 111-123.

예수는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가 곧 구원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사용했을 표적자료(sign source)에 나오는 기독교론과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기독교론을 뛰어 넘고 있다. 이제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중심개념이 예수가 하나님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는 수행자로 인식하였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생각했지 목적으로 보려하지 않았다. 예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간에게 구원(목적)을 주신 분,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분으로 인식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런 오해의 요소를 제거한다. 예수 자체가 궁극이며 목적이다. 예수가 곧 생명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곧 생명이다. 예수가 부활을 가져다주는 분이 아니라 그가 곧 부활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요14:1-23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14:2)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과 상반되는 느낌을 받는다. 예수가 가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며 영생도 그 곳에서 얻는다고 종말론적이고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집’은 희랍어로 *home*로 무슨 특별한 거쳐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누구나 거하는 곳, 집, 방 등이며 동사 *menein*은 ‘머무르다’, ‘거하다’, ‘주거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말 이후에 예수는 다시 올 것을 약속한다. 이 점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갈 곳은 저곳이며 그 곳에서 영생을 얻으며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전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 도마의 첫 질문이 따른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24) R.T. Fortna, *op. cit.*, p. 40.

“(14:5) 그 때에 예수의 대답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 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14:6)였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은 통로라는 개념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임을 의미한다. 그 해답이 7절에 나온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의 현존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놀란 빌립이 두 번째 질문을 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십시오.” 예수가 다시 대답한다.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고 말한다. 여기서 ‘있다’는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menon)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에서 ‘계신다’(menon)와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그 다음 맥락에서 나오는 파라크레토스의 약속에서 (16-17) 더 분명해 진다. 예수가 떠난 이후 오시는 파라크레토스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menei)또 너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17절).

여기서 계속되는 ‘거한다’(menei)는 언급은 일관성이 있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시공간적인 의미로 상징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관계성에 있다.²⁵⁾ 아버지가 아들에 거하고, 아들이 파라크레토스에 거하고 파라크레토스가 믿는 자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아들-파라크레토스-믿는 자가 하나되는 연결성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믿는 자가 하나의 관계로

25) R. Scroggs, *Christology in Paul and Joh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pp. 97-99.

나타난다. 이것을 예수는 “그 날에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20절)로 표현하고 있다. 파라크레토스를 통하여 하나님-예수-믿는 자가 함께 거하는(mutual indwelling)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an unbroken relationship with God)이다.²⁶⁾ 반대로 죽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함이다. 이 점에서 영생은 예수 안에 있으며 그것은 곧 현재에 나타나며 또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② 세상과 함께 하는 생명

파라크레토스를 통한 하나님과 하나됨(거함)이 바로 영생이라면 요한복음은 일종의 신비주의거나 열광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 신비주의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신을 경험한다는 감정적인(affective)신비주의와 또 하나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존재론적(ontological)신비주의이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후자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거한다’는 단어는 다분히 존재론적으로 신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유대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런 존재론적 신비주의가 유입되는 것을 교회는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교회 전통에서 유일신관과 하나님-인간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믿는 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된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같아진다는 오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26) J.Jervell, *op. cit.*, p. 46.

데 그것은 존재론적이거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동과 의지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by nature)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오는 새로운 삶의 변혁인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얻음으로 믿는 자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 (participation) 하는 것이다. 이 참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위에 나타나는 체천(體天)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는 ‘그 안에 거함’ (15:1-8) 바로 ‘사랑 안에 거함’ (15:9-17)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곧 사랑이다. 이러한 사실이 요한 일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다. 즉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요 I 4:8)이 하나님과 하나된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요 13:34, 15:12, 요 I 4:7-10).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표현으로 이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수는 떠나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 자신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자신의 드림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영생은 그 자체가 신비적이거나 내적 경험이나 존재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행위적이며 언제나 현재적 의미를 지닌 사랑이라는 실천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요 3:16-21에 보면 알 수 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는 사랑은 대상 자체를 세상으로 삼고 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떤 특수계층 만을 참여케 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없다는 대상마저 참여케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1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사상은 세상

은 심판 받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궁극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말한다. 세상이기에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결단하지 않았기에 심판에 이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했기에 구원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세상은 가능성 속에 있다. 이 점에서 예수는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나이다”(17:18) “내가 구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옵고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이옵나이다(요17:20-21)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예수-믿는 자의 하나됨이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예수-세상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요한복음은,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되어, 세상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려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인간 개인 구원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참여하여 하나됨으로, 이런 변혁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냄으로, 하나님-인간-세상이 하나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 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한 세계의 창조질서는 그대로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이 가꾸지 않는 한 세계는 어떤 발전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창조세계는 파멸되어 인간마저 멸절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창조세계는 보다 찬란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서구의 사상과 편협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멸절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 나타나는 상생하는 인간 중심적 사상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계급성과 인간만을 중심하는 에고이즘을 극복하게 하고 인간은 다른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신과 상생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후천개벽을 보여준다. 한국종교에 나타나는 인간 중심적 사상은 서구사상에서 나타난 인간 중심적 사상과 다르다. 서구 사상은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적 사상이라면 한국종교에서는 인간의 주체가 되어 상생하는 세계를 만드는 인간 중심적 사고이다.

또 하나는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간론이다. 요한복음의 인간론은 한 마디로 “모두가 하나되는 인간관”이다. 그 중심을 예수로 보았다.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됨에서, 파라크레토스를 통하여 예수와 믿는 자가 하나됨으로 결국 하나님과 믿는 자가 하나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하나됨은 이제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기서 하

나됨이란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즉 “끊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됨이다. 하나님-예수-믿는 자-세상이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감이 곧 하나됨이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인 영생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간 모습인 영생은 초월적이거나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실천적인 개념이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결국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하나됨과 영생이 드러난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됨-끊을 수 없는 관계로 되는 것이며,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이러한 세계가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하여 책임적 존재로 서는 것이다. 예수께서 파괴된 인간과 창조세계를 위하여 책임적 존재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아가게 한 것 같이, 영생을 지닌 인간도 세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과 영생의 증표인 사랑인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그분과 하나되는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